



|화제의 전시|

근대 건축물과 미술 작품과의 만남

‘산책’

시립미술관(관장 이지호)과 ATA 아시아 건축 연구실(대표 한필원)은 6년 가까이 굳게 잡겨 있던, 현재는 대전 보훈청 별관(중구 은행동)으로 불리는 건물에 문화의 향기를 피워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열리고 있는 광복 60주년 기념 열린미술관 산책-건축과 미술전은 시사하는 바가 큰 전시다.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던 원도심의 건물을 활용해 참신하고 의미있는 전시회를 열었다는 사실이다. 원도심의 힘, 바로 역사성에 의지한 전시회는 원도심 활성화 문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근대 건축물의 활용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방치와 소멸, 그리고 망각의 단계를 거쳐 먼지 앉은 기록 속에서만 겨우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근대건축물의 운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의미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번쩍거리는 새 것만을 찾아나서는 동안 47년된 건물은 외로움에 지친 여인네처럼 더욱 더 쉽게 낡아져 버렸다.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세로 형태의 차양(루버)도 녹이 슬었고 곳곳의 칠은 벗겨졌다. 그런 시간의 흐름들은 권종환, 유동조, 유재중, 이동석, 이상봉, 전재홍, 정장직 등 7명의 작가의 작품들과 어우러지면서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미술품으로 다가오고 있다.

1 유동조의 작품 ‘사이에서’. 건물입구를 활용, 스크린을 설치했다. 2 전재홍의 소록도를 소재로 한 사진 설치 작품.

한필원 대표(한남대 건축학과 교수)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시민들이 근대 건축물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뜻을 모아 옛도심을 정감어린 곳으로 가꿔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호 관장은 “원도심 활성화를 경제적인 논리로만 풀기 보다는 문화와 역사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